

2008 함께라서 좋아요

〈2〉 미술가족 노의웅 교수네

“창작 열정 가족 행복서 나오죠”

서양화가 노의웅(64·호남대)교수의 집안은 늘 어수선하다. 캔버스 가득 구름을 그리고, 한지를 찢어 붙여 꽃을 만들고, 익살스런 조각품을 다듬고... 노교수 부부와 셋 딸 등 다섯 가족이 작품을 만드느라 부산하게 움직이기 때문이다.

노 교수 가족은 미술가족으로 유명하다. 그림을 그리는 노씨 부부는 물론 첫째 딸 미술(41·호남대미술공예), 셋째 딸 미라(34·서양화·동일전자정보교사)씨, 막내 딸 미화(32·조각)씨 등 7명의 식구 중에서 5명이 미술과 관련이 있다. 특히 미라씨는 지난 94년 광주시전 대상, 95년 무등미술대전 대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노 교수 가족은 새해 첫날인 지난 1일에도 무등산이 한눈에 내다보이는 광주시 북구 우산동의 가족작업실에서 각자 작품을 만들었다. 이들이 새해 첫날의 여유로움을 포기하고 창작 열을 불태운 것은 내년 가족 전시회를 위해서다. 아버지의 대학 장년퇴임에 맞춰 여는 두 번째 가족 전시회다.

노 교수 가족은 지난 2004년 광주에서 ‘노의웅 화백 5가족 전시회’를 열어 화제를 모았다. 종종 부부 전시회를 여는 경우는 있지만 일가족 다섯 명이 한자리에 전시회를 한 것은 극히 드문 일이다.

“늘 같은 곳을 함께 바라보기 때문에 갈등도 미움도 없어요. 세대 차이도 극복되고, 미술이라는 큰 틀에서 서로 이해하기 때문에 집안에 늘 웃음이 가득해요.”

한술밥을 먹는 예술 가족이지만 작품 세계는 각양각색이다. 조세대



서양화·조각·한지그림공예를 하는 노의웅 교수의 가족은 기회가 되면 누구나 쉽게 찾을 수 있는 미술관을 건립할 꿈을 갖고 있다. 왼쪽부터 부인 임순임씨, 노의웅 교수, 미화·미술·미라씨. /위정량기자 jrwi@kwangju.co.kr

예술 세계는 ‘따로 또 같이’... ‘가족 미술관 만드는게 꿈’

미대를 졸업한 노 교수는 16차례의 개인전, 국립 현대미술관 현대미술 초대전, 예술의 전당 개관 초대전 등에 참가한 중진화가다. 그는 어린 시절 고향 들만에 누워 바라봤던 구름의 다양한 모습을 소재로 한 원시적 자연을 형상화하고 있다.

어려서부터 붓을 장난감 삼아 놀던 미라·미화씨는 부친의 영향을 받아 일찌감치 미술을 전공했다. 미라씨는 나무의 결을 사실적으로 표현하는 작품을 하고 있다. 오래된 시골집 대문, 산사의 문살, 기둥에 남겨진 흠을 정교하게 그린다. 미화씨는 개구쟁이 소년이 엉덩이에 두 손을 얹고 머리를 깊게 숙여 환하게 웃는 모습 등 인간의 다양한 표정을 살린 조각을 빚고 있다.

부인 임순임(56)씨와 큰딸 미술(41)씨는 노교수에게 넘겨 미술을 배웠다. 1992년 처음 붓을 잡은 임씨는 작은 점을 찍어 선과 면으로 그림을 완성하는 점묘화법을 이용, 편안한 느낌의 작품을 보여주고 있다.

노 교수는 “가족이 함께 예술을 하면 서로의 작품을 모방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확립성을 막기 위

해 서로에게 자신의 기법과 작품 세계를 강요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하지만 고스넨한 고향길을 걷는 듯한 작품의 서정적인 분위기는 ‘노 교수 가족’의 특징이다. 지난번 가족전시회에서도 관람객들은 “작품이 풍기는 따뜻한 느낌이 비슷하다”고 입을 모았다.

최근엔 미라씨의 남편 이상열(36·교사)씨도 서예에 폭 빠져, 내년 가족 전시회는 ‘6인 전시회’로 치러질 예정이다. 사위의 합류로 전시장이 더욱 비좁아 질 것 같지만 노 교수는 벌써부터 행복한 격정을 한다.

노 교수는 “기회가 되면 누구나 찾아와서 마음껏 구경하고,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가족 미술관을 만드는 게 꿈이다”고 말했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스 뮤지션스 그룹) ▲스콜피아 오케스트라 연주회(스콜피아 오케스트라) ▲쓰레기 마왕 대소동(한국반달문화원) ▲정혜경 무용단 현대무용(정혜경 무용단) ▲한·몽고류연주회(아시아민속 음악 교류협회) ▲광주 하모니시어싱합창(광주하모니시어싱합창) ▲로페카 앙상블의 겨울음악회(로페카 앙상블)

◇남도소리 상설무대 ▲남무(男舞), 여무(女舞) 그리고 향(香)(류무용단) ▲가야금이야기(빛고을 무등

가야금연주단) ▲전통관소리 및 산조, 가야금 병창과 고법(윤진철) ▲김은숙 가야금 병창(김은숙 가야금 병창단) ▲해설과 대화가 있는 한국 무용의 세계(삼성무용단) ▲수궁가 한 마당(주수연) ▲성애순 가야금 산조와 맛·성금연 가야금 산조 전바탕(성애순) ▲가야금 병창과 관소리(한·일 가야금병창 보존회) ▲우리춤의 맥(최지선) ▲수궁가 완창(박복희 관소리 연구소) 문의 062-510-9254.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광주시립미술관 해외로... 해외로...

아시아현대비엔날레 기획전 참가 대만국립미술관과 작가 교류 협약

광주시립미술관(관장 박지택)이 새해를 맞아 지역작가들의 해외진출에 적극 나선다.

광주시립미술관은 아시아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대만국립미술관(사진)과 작가교류협약을 체결하는 등 올해 국제 교류를 활발하게 추진하기로 했다.

시립미술관은 2일 “대만국립미술관과 구랍 25일 업무협약체결을 통해 양국의 젊은 작가들의 교류증진 등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체결에는 ▲소장품·학예연구사 교류 및 공동 연구실현 ▲2008년 대만국립미술관 기획전 광주순회 ▲2009년 제2회 아시아현대비엔날레(대만국립미술관 주최)기간 중 광주시립미술관 기획전 개최 등이 포함돼 있다. 또한 양 미술관은 시립미술관 팔각정·양산동 창작스튜디오와 대만국립미술관 타이베이 창작스튜디오 입주작가 2명을 해마다 상호교류하기로 했다.

특히 대만국립미술관은 제2회 아시아현대비엔날레의 한국작가 추천권을 광주시립미술관에 의뢰하기로 구두



합했다. 이에 따라 시립미술관은 팔각정·양산동스튜디오의 올해 입주작가 마무리되는 2월중에 교류 작가를 선정할 계획이다.

지난 1988년 건립된 대만국립미술관은 연면적 3만8천㎡의 대규모로 조성됐으며, 6개의 전시실·육의 조각품 정원·예술 스튜디오·교사 지원 센터·어린이 도서관·레크리에이션 공간 등을 갖추고 있다.

한편 시립미술관은 지난 2003년 미국 뉴욕 퀸스미술관을 비롯해 대만국립 미술관(2004년), 중국 광저우(廣州) 예술박물관 등과의 교류전을 갖는 등 외국 미술관과의 교류를 확대하고 있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광주 문진위 올 사업비 15억1,000만원

국제문화교류 등 신규 추진

광주문화예술진흥위원회(위원장 오건택·이하 문진위) 2008년 사업비가 지난해에 비해 대폭 늘어났다.

문진위의 올 사업비는 모두 15억 1천만원으로 지난해 보다 63%가 증가했으며 국제문화교류 등 신규 사업도 진행된다.

올해 눈에 띄는 변화는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4억 500만원), 무대공연 작품 제작 지원(2억 4천600만원), 예술

동아리 지원(4천500만원) 사업 등 지금까지 광주시가 주관했던 각종 공모사업이 문진위로 이관됐다는 점이다. 또 광주문화예술지표 조사(7천만원), 국제 문화교류 사업(1억 2천500만원) 등도 신규사업으로 추진한다. 한편 문진위는 현재 문화예술진흥지원기금 지원 사업(29일 마감)과 무대공연작품제작지원 사업(28일 마감) 공모를 진행중이다. 문의 062-381-2234.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신경숙 등 여성 작가 3인 인터파크 ‘온라인 사인회’

인터넷서점 인터파크도서는 조경란, 신현림, 신경숙 등 여성 작가 3인을 초청해 1월 한 달간 ‘릴레이 온라인 사인회’를 진행한다.

조경란의 ‘해’(2-13일)를 시작으로 신현림의 ‘내 서른살은 어디로 갔나’(14-23일), 신경숙의 ‘리진’(24일-2월3일) 등 온라인 사인회가 차례로 이어진다.

이 기간 해당 작품을 구매하는 독자들은 세 작가의 친필 사인이 담긴 책을 받아들 수 있다. 또 세 작가의 행사 기간 인터파크도서 북블로그인 ‘북리더’에 개인 블로그를 개설해 독자와 작품과 일상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들을 나눌 예정이다. /이민지기자 emlee@kwangju.co.kr

‘K옥션 아카데미’ 개설

미술품 경매회사 K옥션이 ‘작가와의 만남’을 주제로 교육 강좌 ‘K옥션 아카데미’를 연다. 이번 아카데미는 10일 ‘소나무 사진작가’ 배병우의 강의를 시작으로 3월6일까지 총 8회에 걸쳐 매주 목요일 오후 6시에 청담동 K옥션 4층에서 열린다. 배병우 이외에 ▲김홍주 1월17일 ▲사석원 1월24일 ▲황주리 1월31일 ▲이상림 2월14일 ▲이동기 2월21일 등이 참여한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화요예술·남도소리 상설무대 올 공연작

‘강운숙의 재즈여행’ 등 20작품 선정

광주문화재단이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화요 공연인 ‘화요예술무대’와 ‘남도소리 상설무대’ 2008년 공연작이 확정됐다. 문화재단은 최근 공모를 거쳐 ‘강운숙의 재즈여행’ 등 모두 20작품을 선정, 발표했다. 공모

당선작에는 대관료 면제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화요예술무대 ▲봄의 향기(Dill Trio) ▲Leave Trace(아시안 발레단) ▲한국가곡의 밤(한국예술가곡보급연구회) ▲강운숙의 재즈여행(제이에

스 뮤지션스 그룹) ▲스콜피아 오케스트라 연주회(스콜피아 오케스트라) ▲쓰레기 마왕 대소동(한국반달문화원) ▲정혜경 무용단 현대무용(정혜경 무용단) ▲한·몽고류연주회(아시아민속 음악 교류협회) ▲광주 하모니시어싱합창(광주하모니시어싱합창) ▲로페카 앙상블의 겨울음악회(로페카 앙상블)

◇남도소리 상설무대 ▲남무(男舞), 여무(女舞) 그리고 향(香)(류무용단) ▲가야금이야기(빛고을 무등가야금연주단) ▲전통관소리 및 산조, 가야금 병창과 고법(윤진철) ▲김은숙 가야금 병창(김은숙 가야금 병창단) ▲해설과 대화가 있는 한국 무용의 세계(삼성무용단) ▲수궁가 한 마당(주수연) ▲성애순 가야금 산조와 맛·성금연 가야금 산조 전바탕(성애순) ▲가야금 병창과 관소리(한·일 가야금병창 보존회) ▲우리춤의 맥(최지선) ▲수궁가 완창(박복희 관소리 연구소) 문의 062-510-9254.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Movie listings for Megabox, Enter Cinema, Columbus Cinema, Seniors Theater, and Mudeung극장. Includes showtimes and featured films like 'P.S. I Love You', 'The American Gangster', and 'The Girl on the Train'.